

재해경험 유무에서는 있는 사람이 69명(24.4%)이었으며 69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58.0%)가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의 무시'가 18.8%로 나타났다.

3) 작업환경

① 건강과 관련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불안하다(61.5%)'가 가장 많았고, '보통(21.9%)', '불안하지 않다'(16.6%)의 순이었다.

② 작업환경에 대한 불안요인은 '분진(42.1%)'이 가장 많았고, '소화기 장애'(21.4%), '소음(11.4%)', '시력장애(5.0%)', '정신적 스트레스(5.0%)', '수면장애(2.1%)', '피부(1.4%)' 순이었다.

③ 환경문제로 인한 이직의사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생각중'인 사람(50.5%)이 가장 많았고, '이직계획중'인 사람이(5.7%)였다.

B. 대상자의 간호역할기대

대상자의 간호역할기대에 대해서는 평균이 4.121로서 '의사의 지시를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과 적절한 간호수행'(4.671)이 있고, 가장 낮은 항목은 '근로자의 보건과 위생보호구 작용지도'(3.597)이 있다.

2. 제언

산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및 간호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제28권 제2호, 1989.

김 난 실

1. 결론

1988년 8월 26일부터 1988년 10월 7일 사이에 경기도내(성남시, 광주군)의 108개 사업장(제조업사업장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작성한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백분율, Chi - Square test (χ^2 - test), 5점척도, mean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업종별 보건담당자의 선임여부를 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선임돼 있었으며 안전관리자는 전기·전자·제지·인쇄·출판업 종에서 1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는 전체 사업장 중 36.1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도 문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

는 촉탁의사에 불과했고 전임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없는 실정이다. 일반요원도 22.22%가 있다는 응답을 했는데 이는 일반요원이 면허증과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장 업종별 근로조건 실태를 보면 대부분 사업장이 근로시간은 8시간~10시간 정도이며,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야간작업은 업종에 따라 달랐으나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사업장 업종별 적성검사 실시 여부를 보면 전체 사업장 중 75%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업장 업종별 건강진단 실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건강진단은 25.93%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검사 항목 중 신장, 체중, 혈액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간기능검사, AIDS, 심전소, 중금속오염도, 소화기계검사, 디스크, 객담, 혈당, 성인병은 시행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응답했다.

5)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 실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시 응급조치 구급약과 비품의 배치는 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업장 업종별 보건교육 실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간 1회 정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은 건강관리, 사고예방, 산업안전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은 개인상담과 집단교육, 게시판을 주로 이용했다. 보건교육후, 평가는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개정·강화하여야 겠다.

2) 사업장 보건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겠다.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의 대행으로 일반의사에 의한 형식적인 보건관리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체의 집단관리제도를 실시하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주요 유해물질별로 전문보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야겠다.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 및 전문인력을 양성해야겠다.

4) 산업재해는 그 원인 및 사업상의 법령위반 여부, 재해의 장소, 기인물 등을 조사하고, 반복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5)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의 적절한 조절을 한다.

6) 적절한 근무배치를 위해서 적성검사실시를 해야겠다.

7) 형식적 건강진단을 떠나서 실질적이고, 타당성있는 신체검사로 해야겠다.

8) 사업장의 근로자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9) 사업장의 특성별로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책해서 보건교육실시를 해야겠다.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의 인력분포와 산업간호의 제공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호, 1989.

김순례 · 이지현

본 연구는 전국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의 배치현황을 파악하고 기능별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의무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986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업체를 1차 전화로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산업간호사에게 설문지에 의한 면접 및 의무실일지를 검토하였으며 1주간 동안 산업간호사의 직접기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산업간호사의 배치현황

총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282명이 연구대상이 되었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272개업체이었다.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근로자 수는 1,766명이었고 속해 있는 사업체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이 38.6 %였으며, 전국 산업체 중 산업간호사 배치된 율은 0.25 %이다.

평균 연령은 28세, 전문대졸이 80 %, 현직경력은 56.8 %가 1~5년이었고 업무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월평균 보수는 35만원이고 의무실은 78.3 %가 독립되어 있었다.

보건관리자는 촉탁이 71.9 %이었고 경영주는 대부분 산업간호에 긍정적이었으며, 지정병원이 없는 경우가 17.1 %였다. 이들이 근무하는 산업체의 재해건수율은 23.8 %이었다.

2. 기능별 업무내용분석

산업간호사의 기능을 네가지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업무내용별 수행율을 파악한 결과 간호제공업무가 평점 0.61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다음은 산업간호사업운영 업무 0.53, 환경관리업무 0.37, 복지후생업무 0.33의 순이며, 간호제공업무 중에서는 정기 신체검사에 참여와 건강관찰 및 개인상담이 100 %, 건강상태 설명 97.4 %, 응급처치 및 혈압측정이 각 97.1 %의 순이었고 반면 집단보건교육의 수행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가정상비약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이 41.2 %로 낮았으며 처무규정의 확보는 34.3